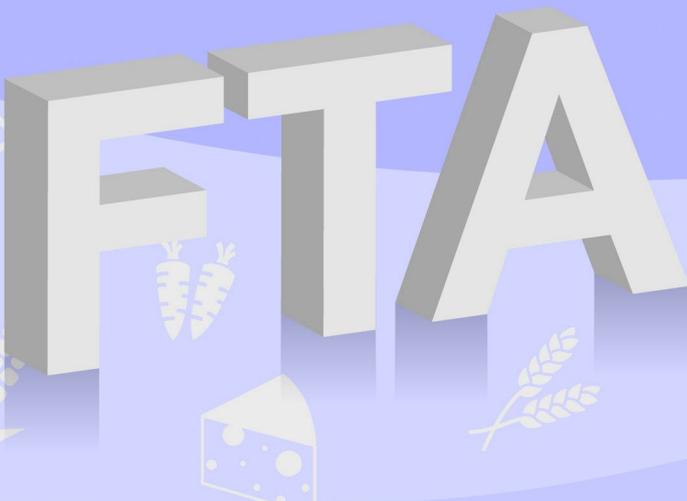


제13호 | 2015.9.15

당근 수급 현황 및 시사점



FTA

당근 수급 현황과 시사점

세계 수급 동향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경제권)들의 당근 생산량¹⁾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

○ 2013년 세계 당근 생산량은 3,723만 톤으로 최근 10년 간 48% 증가

- 당근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생산량은 약 1,693만 톤으로 최근 10년 간 2배 이상 증가
- 그 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EU와 미국의 당근 생산량은 2000년 이후 각각 520~550만 톤과 120~150만 톤 수준을 유지
- FTA 비체결 국가들 중에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주요 당근 생산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생산량은 최근 10년 간 3배 이상 증가

표 1. 주요 국가별 당근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감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FTA 체결국	중 국	14,859	15,168	15,662	16,220	16,558	16,929	7.9	2.2
	E U	5,224	5,448	5,220	5,647	5,395	5,406	0.9	0.2
	미 국	1,479	1,327	1,342	1,299	1,346	1,290	-3.6	-4.2
	터 키	592	594	533	602	714	570	-4.4	-20.2
	인 도	446	441	489	515	520	520	7.6	0.0
	소 계 ²⁾	23,847	24,308	24,664	25,800	26,063	26,137	4.9	0.3
FTA 비체결국	우즈베키스탄	910	995	1,107	1,424	1,559	1,642	39.7	5.3
	러시아	1,530	1,519	1,303	1,735	1,565	1,605	4.4	2.6
	우크라이나	740	686	715	864	916	930	20.3	1.5
	폴란드	817	913	765	887	835	743	-12.2	-11.0
	일 본	657	650	596	617	613	601	-4.1	-2.0
총 계	32,992	33,385	33,661	36,189	36,948	37,227	8.2	0.8	

주 1)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 중 생산실적 순으로 정리함.

2) 당근 생산량은 FAO의 Carrots와 turnips 기준임.

3) 평년은 2008~2012년 생산량 중 최고·최소를 제외한 평균값임.

자료: FAO STAT.

1) 각 국가의 당근 생산량은 2013년 생산량 기준임.

2) 소계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전체 당근 생산량임.

- 주요 당근 수출국은 EU,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에 달함.
 - 2012년 전 세계 연간 당근 수출량³⁾은 약 230만 톤이며, 최대 수출국인 EU의 연간 수출량은 97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43%를 차지
 - 그 외, 중국, 미국, 캐나다의 당근 수출량은 각각 60만, 11만, 9만 톤임.

표 2. 주요 국가별 당근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율	
						평년 대비	전년 대비
EU	945,853	971,720	964,176	964,394	974,314	1.69	1.03
중국	430,390	437,768	499,188	588,457	595,869	30.74	1.26
미국	126,204	113,899	115,816	117,574	114,715	-2.07	-2.43
이스라엘	106,674	97,346	106,176	157,875	108,762	5.19	-31.11
캐나다	86,873	85,997	85,694	98,103	91,585	6.26	-6.64
기타	323,089	359,754	400,903	375,529	383,896	6.86	2.23
전체	2,019,083	2,066,484	2,171,953	2,301,932	2,269,141	8.79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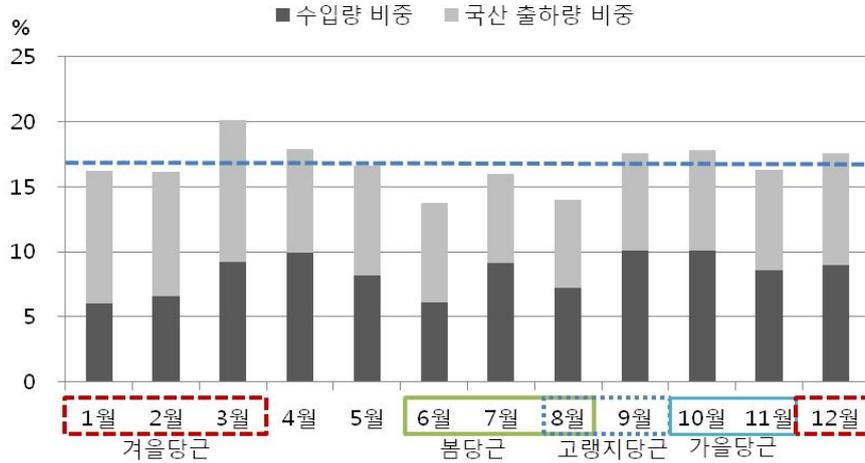
자료: FAO STAT.

수입 동향

- 2000년대 들어 당근 수입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1년부터 9만 톤 이상 수입
 - 2000년 1만 1천 톤에 불과했던 당근 수입량은 2011년 9만 6천까지 증가했고 2014년까지 9만 톤 이상을 유지함.
 - 연중 당근 수입량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겨울당근 수확이 집중되는 1~2월, 봄당근 수확이 시작되는 6월, 봄당근과 고랭지당근 수확이 동시에 이뤄지는 8월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반면, 겨울당근 출하가 거의 종료되는 3~4월과 고랭지당근과 가을당근이 출하되는 9~10월의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3) 당근 수출량은 2008년부터 2012년의 평균 수출량임.

그림 4. 월별 수입량 비중과 국산 출하량 비중



주: 2010~2014년 수입과 출하 실적을 합산하여 월별 비중을 산출함.

자료: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가락시장) 출하 실적, GTIS-GTA 통계를 기초로 필자 작성.

- 2014년 기준, 전체 수입 당근 중 중국산의 비중은 95.1%이고, 베트남산은 4.7%임.
 - 2014년부터 수입이 급증한 베트남산 당근은 국산 겨울당근 출하시기와 비슷한 1~6월에 주로 수입됨.

표 3. 주요 수출국으로부터의 당근 수입 동향

구분	단위: 톤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7월)
전체	11,430	73,206	86,367	96,339	95,529	108,020	99,369	56,794
중국	9,544	72,641	86,132	95,478	95,314	107,685	94,485	52,145
베트남	0	0	122	229	23	50	4,711	4,583
미국	139	386	88	89	76	100	127	40
터키	0	0	22	61	100	60	40	20

자료: GTIS-GTA.

- 베트남산 당근 수입단가는 중국산에 비해 낮으며,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이 더 커짐.
 - 2014년 베트남산 당근의 연평균 수입단가는 kg당 0.48달러로 중국산에 비해 4.5% 낮음.
 - 2015년 1~7월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0.33달러이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중국산에 비해 45.3%까지 낮아짐.
- 한-베트남 FTA 양허 내용 중 당근은 한-아세안 FTA의 연장선에서 신선/냉장, 냉동, 일시저장처리는 무관세, 건조는 5%가 적용됨.
 - 반면, 한-중 FTA에서 당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모든 품목(HS코드)에 대해 기준세율 적용

표 4. FTA 체결국별 당근 양허 내용

품 목	양허 내용						기준세율 (중국 ²⁾)
	터키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EU	베트남	
신선/냉장	30% 또는 134원/kg 양자 중 고액(율)	2010년까지 철폐	2010년까지 철폐	5년 철폐	5년 철폐	즉시 철폐	30% 또는 134원/kg 양자 중 고액(율)
냉 동	27%	10년 철폐	즉시 철폐	5년 철폐	5년 철폐	즉시 철폐	27%
일시저장 처리	30%	10년 철폐	즉시 철폐	10년 철폐	10년 철폐	즉시 철폐	30%
건 조	30% 또는 846원/kg 양자 중 고액(율)	2.7% 또는 79원/kg 양자 중 고액(율)	2012년까지 20%, 2016년부터 5%	10년 철폐	7년 철폐	2016년부터 5%	30% 또는 846원/kg 양자 중 고액(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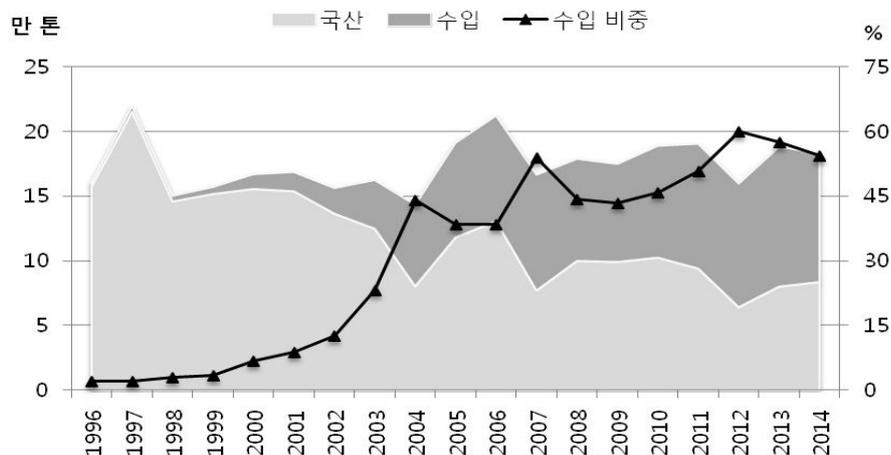
주 1) HS코드: 신선/냉장 0706101000, 냉동 0710804000, 일시저장처리 0711904000, 건조 0712902040.
 2) 한중 FTA에서 당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준관세율 적용.
 자료: 각 FTA 협정문.

국내 생산 현황

□ 국내 당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00년대 수입 당근 증가로 감소 추세를 보임.

- 2014년 당근 재배면적은 2,397ha로 2000년 대비 45.3% 감소
 - 당근 재배면적(ha): 3,978('80)→4,270('90)→4,383('00)→2,711('10)→2,397('14)
- 2014년 당근 생산량은 8만 3천 톤으로 2000년 대비 46.3% 감소
 - 당근 생산량(천 톤): 75('80) → 87('90) → 155('00) → 102('10) → 83('14)
 - 2012년 국내 당근 자급률은 40.0%까지 하락했고, 2014년 45.6%로 다소 회복됨.

그림 4. 당근 생산량과 수입량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www.gtis.com).

□ 특히, 생산 비중이 가장 큰 겨울당근과 고랭지당근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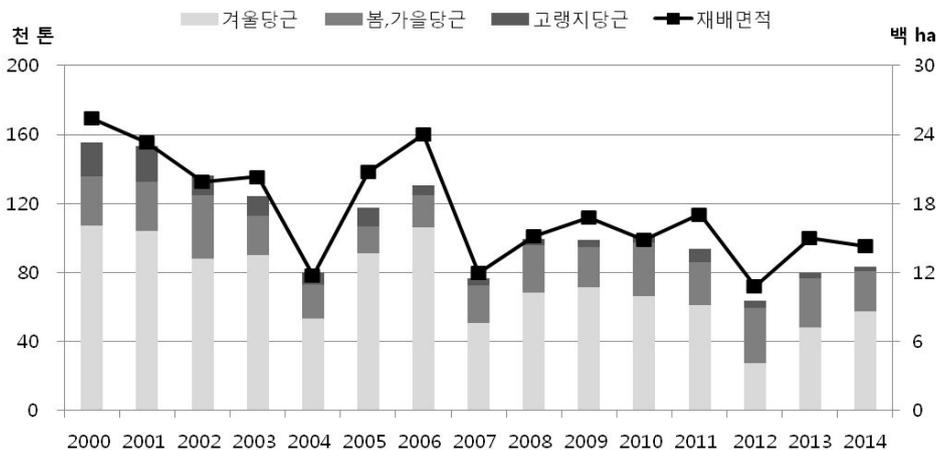
- 2014년 기준, 국내 당근 생산량 중 겨울당근 비중은 67%, 봄·가을당근과 고랭지당근 비중은 각각 26%와 7%로 추정
- 겨울당근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및 유실 등으로 재배면적이 급감했으며, 그 후 예년 수준의 재배면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2004년 9월 집중호우, 2009년 태풍(나리), 2012년 태풍(볼라벤, 덴빈) 발생으로 당근 재배면적이 급감함.
 - 겨울당근은 7~8월 파종하여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수확하고, 수확시기 조절 등을 통해 최대 6개월 간 출하가 가능하며, 겨울당근 대부분이 제주도에서 생산됨.
- 고랭지당근은 봄당근, 가을당근과 수확 및 출하시기가 겹치면서 시장에서 그 입지가 작아짐에 따라 재배면적이 감소함.
 - 고랭지당근은 5월 파종하여 8~9월 수확하며, 고랭지당근의 약 50%가 강원도 평창지역에서 생산됨.
 - 봄당근은 3~5월 파종하여 6~8월 수확하고, 가을당근은 7~8월 파종하여 10~11월 수확하며, 봄·가을당근 80%가 경상남·북도에서 생산됨.

그림 1. 당근 작형별 파종기와 수확기

작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겨울		수확					파종					수확
봄			파종				수확					
고랭지					파종			수확				
가을							파종			수확		

자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관련 자료를 기초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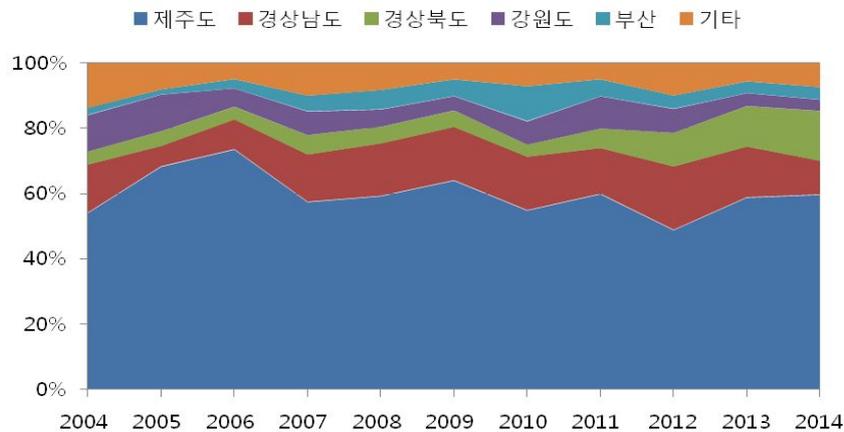
그림 2. 당근 작형별 생산 동향



주: 작형별 생산량은 각각의 주산지를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 2014년 기준, 전체 당근 재배면적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 가장 높고, 그 외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과 강원도가 각각 15.4%, 10.3%, 3.9%와 3.4%를 차지
 - 겨울당근 주산지인 제주도의 당근 재배면적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을 유지함(2012년 제외).
 - 최근 경상북도의 당근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2014년 경상남도를 제치고 2대 당근 주산지가 되었고, 재배면적 비중은 약 15%에 달함.
 - 이에 반해, 강원도와 부산의 당근 재배면적은 크게 감소하였고, 그 비중도 하락함.

그림 3. 지역별 당근 재배면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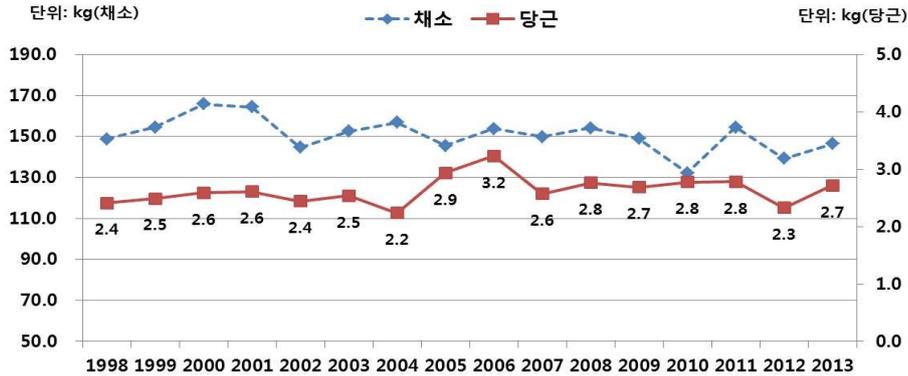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를 기초로 필자 작성.

소비·유통 현황

- 1인당 연간 당근 소비량은 2007년 이후 평균 2.7kg 수준을 유지
 - 채소류 소비량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당근 소비량은 수급이 불안정했던 시기(2004~2006년, 2012년)를 제외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임.

그림 5. 채소와 당근 1인당 연간 소비 동향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 수입 당근은 주로 식당, 식자재 유통업체, 소규모 마트 등에서 소비됨.

- 수입 당근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 또는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 식당, 식자재 유통업체, 소규모 마트 등으로 유통시킴.
 - 당근은 부패성 때문에 대부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되며, 일부 도매법인은 거래업체 다양화를 위해 경매를 실시하기도 함.
- 중국산 당근은 일본 등 외국 종자를 도입하여 재배함으로써 상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세척·예냉된 상태로 운송부터 검역까지 약 4~5일이 소요됨.
 - 최근 수입량이 급증한 베트남산 당근은 현지 재배품종이고 재배기술이 낙후하고, 예냉 및 저장시설 부족으로 중국산에 비해 상품성이 떨어짐.
- 수입 당근은 국산에 비해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세척당근으로 조리·가공의 편의성 때문에 외식업체 및 가공업체의 선호도가 높음.
 - 중국산 당근은 베트남산에 비해 품질경쟁력이 높고, 베트남산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음.

□ 반면, 국산 당근은 대부분 흙(모래)당근 형태로 유통되며 가정용으로 소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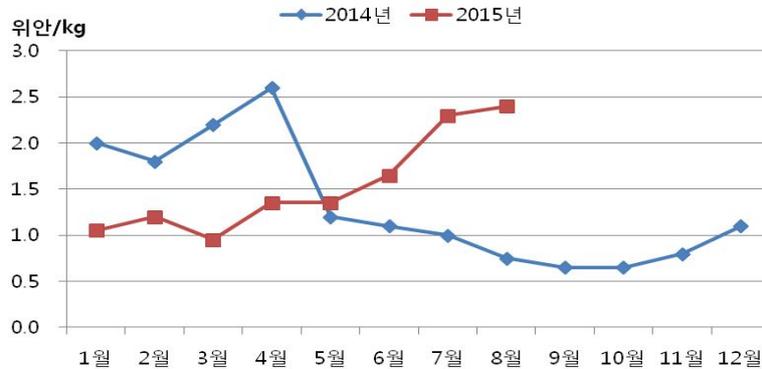
- 가격, 품질, 편의성 측면에서 수입 당근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부들이 국산 흙(모래)당근을 선호하는 이유는 식품안정성에 대한 고려 때문이라고 판단됨.
- 국산 세척당근의 연간 생산량은 4천 톤에 불과하며, 출하시기는 제주도 겨울당근 수확시기(12월~익년 3월)에 국한됨.
 - 세척당근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국내 당근 주산지가 분산되어 있고 상호 협력 체계 부재 등으로 연중 안정적 공급에 한계가 있음.

□ 수입 당근 도매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산 당근과의 가격차가 점차 좁혀짐.

- 최근 중국의 당근 생산량 감소 등으로 수입 당근 도매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2014년도 중국의 당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재배면적 축소로 2015년 중국의 당근 생산량 감소
- 북경시신발지(新發地)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실적에 따르면, 연초부터 당근 도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2015년 8월 말 기준 kg당 2.4위안(약 44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0% 상승함.

그림 6. 중국의 당근 도매가격 변화 추이



주: 해당 월 말일 가격 기준.
 자료: 商務豫報(cif.mofcom.gov.cn).

- 수입 당근의 국내 도매시장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가격 하락으로 수입 당근과의 가격차 축소
 - 2015년 1~7월 수입 당근의 국내 도매시장 반입량은 국산 반입량의 41.7%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9.3%p 상승
 - 반면, 동 기간 국산 당근의 반입량은 봄당근의 저온 및 가뭄피해로 전년 대비 14.3% 감소
 - 그림에도 불구하고, 국산 당근 가격은 상품성 저하로 수입 당근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임에 따라 가격차가 축소됨(84.7% → 91.8%).

표 5. 국산과 수입 당근의 도매시장 반입량과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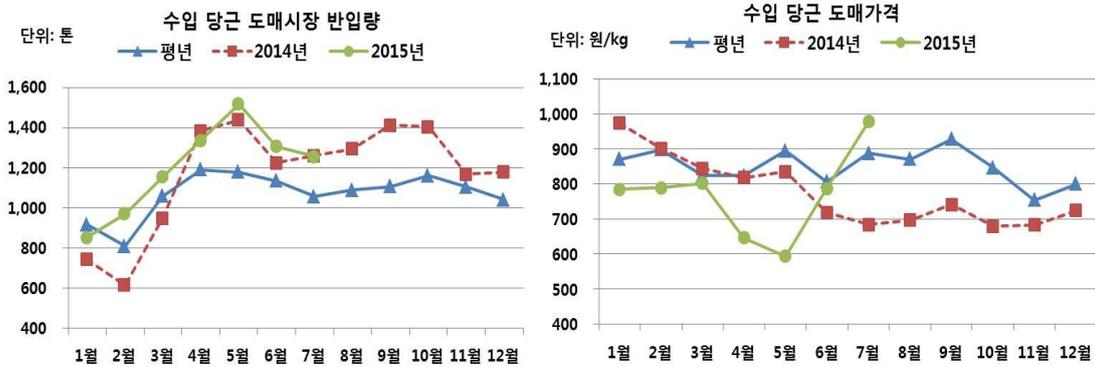
단위: 톤, 원/kg

구분		평년		2014년		2015년	증감(등락)율	
		연간	1~7월(A)	연간	1~7월(B)	1~7월(C)	평년 대비(C/A)	전년 대비(C/B)
반입량	국산	24,569	15,563	37,144	23,512	20,157	29.5	-14.3
	수입 당근	13,034	7,376	14,079	7,618	8,402	13.9	10.3
	비중	53.1%	47.4%	37.9%	32.4%	41.7%	-	-
가격	국산	1,208	1,060	1,060	954	828	-21.8	-13.2
	수입 당근	843	847	761	808	760	-10.2	-5.9
	비중	69.8%	79.9%	71.8%	84.7%	91.8%	-	-

자료: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가락시장) 출하 실적을 기초로 필자 작성.

- 2015년 1~7월 수입 당근의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760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6월부터 중국 내 수급 상황이 반영되어 급등하기 시작함.
 - 7월 수입 당근의 국내 도매시장 반입량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42.9% 상승

그림 7. 수입 당근 도매시장 월별 반입량 및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0~2014년 반입량 및 가격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가락시장) 출하 실적을 기초로 필자 작성.

시사점

- 품질과 가격 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입 당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큼.
 - 최근 중국산과 국산 당근의 가격차가 축소되었으나, 품질 면에서 중국산이 여전히 비교우위를 점함.
 - 또한, 수입 당근은 모두 세척 상태로 편의성을 중시하는 식당, 외식업체, 가공업체의 선호도가 높음.
 - 베트남산 당근은 품질 면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이 약하지만,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어 품질만 개선된다면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 가능
 - 물론, 베트남산 당근은 당분간 국산보다는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큼.
 - 현재까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수입 당근의 국내 시장 확대를 지연시키는 안전핀 역할을 함.
 - 그러나 품질, 가격, 편의성 등에서 모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입 당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향후 어떻게 바뀔지 예의주시할 필요

- 또한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로 당근의 수입선 다변화의 가능성이 커짐.
 - 한·중 FTA에서 당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중국산이 국내 수입 당근 시장을 이미 잠식한 상태임.
 - 그러나, 한·아세안 FTA 이행에 따라 관세가 완전 철폐된 베트남산 당근 수입이 최근 급증하였으며, 그 외에 미국·EU·싱가폴산 당근(신선/냉장)에 대한 관세율도 이미 철폐되었거나 철폐될 예정임.
- 최근 수입이 급증한 베트남산 당근의 사례처럼, FTA 체결 전 그 민감도가 낮다고 판단한 품목의 교역 및 생산현황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향후 신규 FTA 체결 시, 기존 교역실적만으로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과소 평가하여 양허조건을 완화하지 않도록 주의

□ 국내 당근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종 개량,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소비 촉진 등이 시급한 과제임.

-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모두 겸비한 수입 당근과의 경쟁에서 국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종 개량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또한, 윤작 및 토질 개선 등을 통해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함.
- 최근 세 차례(2004년, 2007년, 2012년)에 걸쳐 발생한 자연재해(태풍, 집중호우 등)는 수입 당근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됨.
 - 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농가가 당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당근 재배농가 고령화에 따른 포전거래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가운데 당근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인력 확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현재 제주도에 국한된 세척당근의 출하지역과 물량을 확대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산 당근 소비를 촉진시킴.
 - 최근 소비자들이 식자재 사용의 편의성을 중요시 하는 만큼 국산 세척당근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품질경쟁력을 높여 수입 당근의 시장 확대를 견제할 필요
 - 세척당근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비용과 추가 물류비용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가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
 - 당근 주산지가 분산되어 있고 주산지별 출하시기가 상이한 상황에서, 주산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해야 함.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 「2014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 농촌진흥청 2012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당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월보(당근, 8월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식품수급표 2013」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통계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업전망」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com>)
- 산업통상자원부 FTA(<http://www.fta.go.kr>)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식품산업통계정보(<http://www.atfis.or.kr>)
- FTA 강국, KOREA(<http://www.fta.or.kr>)
- FTA STAT(<http://faostat.fao.org>)
- 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Global Trade Atlas(<http://www.gtis.com/gta>)
- 商務豫報(<http://cif.mofcom.gov.cn>)

작성자 : 지성태 부연구위원, 이수환, 이현근 연구원
 감 수 : 박준기 연구위원